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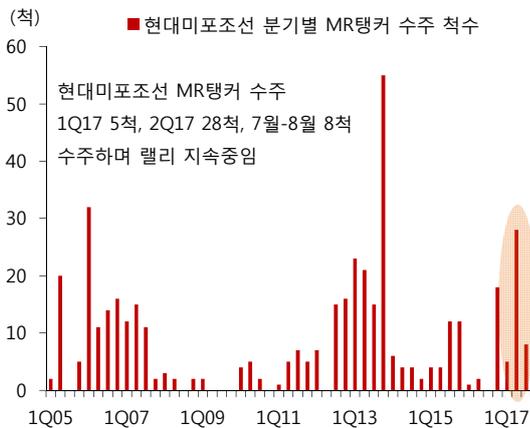
- ✓ 현대미포조선은 8월에 MR 탱커 2 척을 추가 수주함
- ✓ 2017 신규수주의 69%가 MR 탱커로, 미국 ECC 수혜가 큼
- ✓ 용선료도 지속 상승하며 발주 여건 개선증임

## 현대미포조선의 수주는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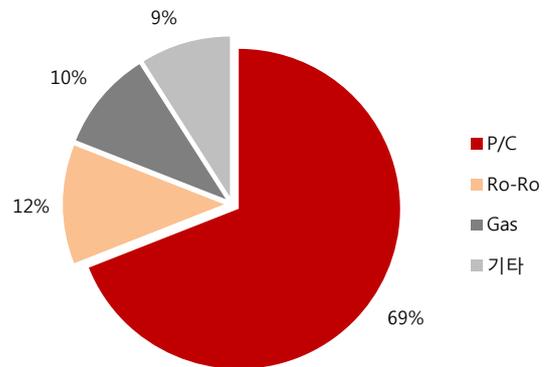
8월달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현황이 발표되었다. 역시 8월에도 MR 탱커 수주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7월부터 8월 사이 주요 선주들이 휴가 시즌에 접어들어 발주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7월 6척 수주에 이어 8월에도 2척을 수주했다. 1분기 5척, 2분기 28척을 수주한 이후에 꾸준히 MR 탱커 수주 잔고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현대미포조선 올해 신규수주 구성에서 MR 탱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달해 미국 ECC 증설의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MR 탱커 용선료 추이를 보더라도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1,000\$/일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사들의 발주 여건이 개선되며 9월 이후로도 꾸준히 발주가 지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은 8월에 사우디 국영 해운사 바흐리로부터 1,350억원에 달하는 벌크선 4척을 수주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주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현대미포조선도 10월부터 생산직들의 휴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빠른 수주잔고 회복세에 힘입어 중단된 도크의 재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연초 이후 MR 탱커 수주 랠리는 휴가시즌에도 지속되었음



현대미포조선 2017 신규수주 구성의 69%는 MR 탱커(P/C 선)



자료 : Clarksons Research, 현대미포조선, SK 증권

자료 : 현대미포조선,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